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4 월

딜로이트 인사이트

‘Media finance’ – 콘텐츠 투자의 투명성 제고

하정석 상무 / 딜로이트컨설팅 TMT 미디어섹터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Syracuse MBA 취득.

미디어산업 전문가. 현재 딜로이트에서 미디어산업 전략 및 파이낸스 관련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Media finance 의 이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의한 여가시간의 증가,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및 글로벌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그 중요성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1.17 조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완성차 시장보다도 크고 반도체 시장규모의 3 배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크게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책과 같이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유·무형의 장치적,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콘텐츠 산업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약 4,200 억 달러, 플랫폼산업의 규모는 약 6,500 억 달러로 추산된다.

Media finance 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집행, 운영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거대 시장규모와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보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파이낸싱 활동이 활발한 것이 당연하지만, 타 산업군에 비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파이낸싱은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첫 번째 이유는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플랫폼 분야는 전자, 통신과 같은 정보통신산업으로, 극장, 공연장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분야는 부동산, 유통업의 파이낸싱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 분야는 해당 재화의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의 파이낸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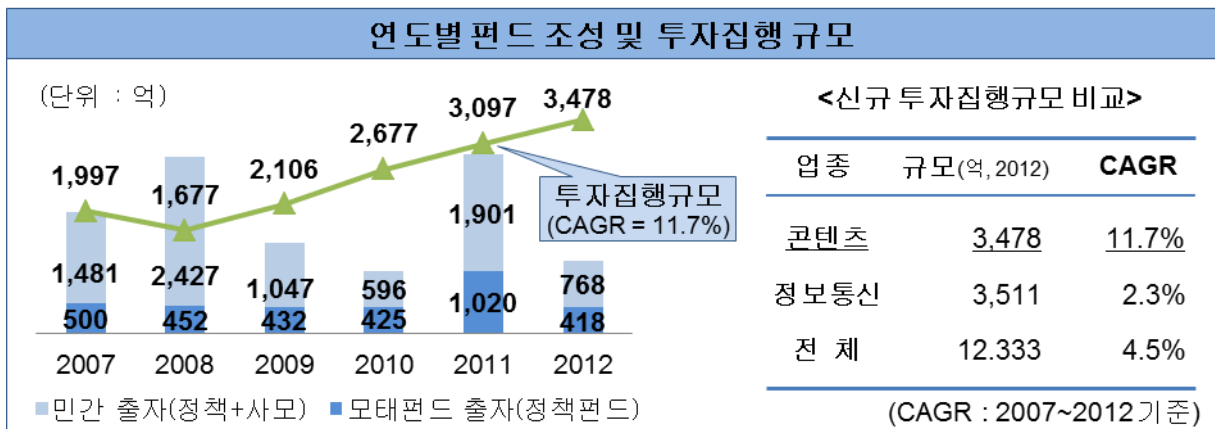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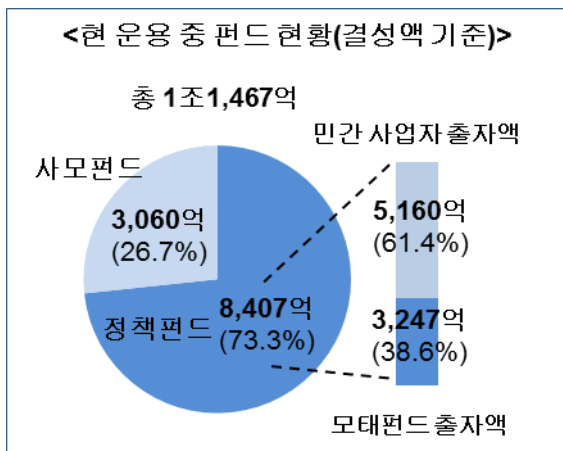
용이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콘텐츠 분야의 파이낸싱은 상당한 경험을 가진 산업전문가와 일부 모험자본가의 특별한 몫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IPTV,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보급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방송국, 영화사 등의 기존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 가전사 등도 콘텐츠 투자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자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한류와 K-Pop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그 자체가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 완성 전까지는 거의 발생되는 가치가 없다는 점, 특히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투명성에 대한 투자업계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민간금융의 활발한 콘텐츠 산업 투자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콘텐츠 투자펀드 운영상의 문제점

최근 콘텐츠 그 자체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콘텐츠 투자펀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콘텐츠 투자펀드의 투자집행규모가 정보통신 분야 투자집행규모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정책펀드: 정부자금(모태펀드)가 투자된 펀드, ** 사모펀드: 순수 민간자금으로 조성된 펀드

이러한 콘텐츠 투자펀드 운용 시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투자된 자금이 콘텐츠의 생산을 위해서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에 있다. 콘텐츠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수많은 과정상의 변수가 존재하고, 제작자는 객관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그러한 변수를 컨트롤하여 최선의 완성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제작자가 적절하지 못한 의도로 제작비를 전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흥행에 따라 수익의 등락폭이 심한 콘텐츠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제작관리의 효율화가 쉽게 간과되는 독특한 업계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 펀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한국영화업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불투명한 제작관리에 대해 투자업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어 왔고, 여전히 투자업계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민간금융의 영화 콘텐츠 투자에 한정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콘텐츠를 직접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미디어사업자와 비교하여 제작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일반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투자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콘텐츠 투자펀드는 투자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타 산업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SPC(문화산업전문회사)를 활용하는 투자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 수행한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2013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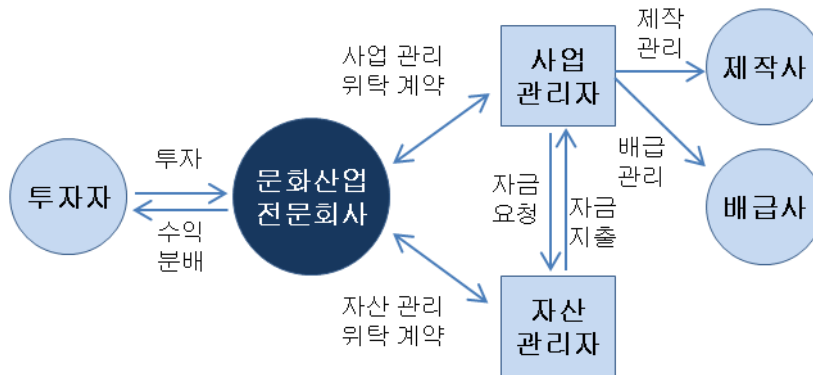


Figure 3. SPC 사업구조

사업관리자는 투자 계약 및 제작 위탁계약 등 회사의 각종 계약 체결업무를 대행하며 투자자금의 조달 업무,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마케팅에 대한 관리 업무, 자금집행에 대한 발의 및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수익분배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프로젝트 유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프로젝트 주요 투자자, 기타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자산관리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및 사업자등록, 해산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자금관리계좌 및 사용인감의 별도 관리, 자금집행의 승인과정 검토 및 최종 자금집행, 전표작성·부가가치세 신고 등 회계·세무업무의 처리, 결산 업무 및 정산서 작성 지원 업무, 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보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자격요건으로는 신탁업자, 법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그러나 SPC 형태의 프로젝트 투자관리체계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SPC의 실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사업관리자가 결국은 관련업계 전문가일 확률이 크고, 관련업계 출신의 전문가가 투자자가 원하는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경우에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콘텐츠 산업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상, 콘텐츠 제작업체 및 배급업체와 독립적, 때로는 적대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업관리자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중립성, 신뢰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회계법인·평가기관·보험사 등이 관련업계 전문가 그룹과 기존 이해관계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SPC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 및 민간금융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상기의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갖춘 회계법인·평가기관·보험사 등이 SPC 관련 콘텐츠 투자활동 감사서비스 및 콘텐츠 연계 상품/사업의 가치평가, 리스크평가, 시장예측 등 향후 다양한 사업기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